광주 불법 한방병원 적발 전국 최다

건보공단, 13년 간 데이터 분석…전국 적발 63곳 중 광주 26곳이나

광주 한방병원 85곳, 서울과 비슷…보험업계 "상당수가 사무장 병원"

광주지역에서 적발된 불법 개설 한방병원 개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009년부터 2021년까지 13년 동안의 불법개설 의료기관 특성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불법개설 의료기관은 일명 '사무장병원'으로 불리며, 의료법상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료인 등을 고용하고 그 명의를 도용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불법 기관을 가리킨다. 적발시 명의를 빌려준 사람부터 실제 운영한 '사무장', 공모자, 방조자 모두 가담자로 처벌된다.

분석 결과 이 기간 전국에서는 1698곳의 불법기관이 적발됐으며, 건강보험공단은 이들에게 제공한 요양급여 비용 등 3조 3674억원을 환수하기로 결정했다.

광주에서는 병원, 요양병원, 의원, 약국 등 총 74곳이 적발됐으며, 전남에서는 45곳이 불법기관으로 밝혀졌다. 건강보험공단은 이들에게서 각각 광주 1166억원, 전남 1608억원의 요양급여 비용을 환수하기로 결정했다.

이 중 광주는 '한방병원' 분야에서 불법기관으로 적발된 사례가 전국에서 가장 많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에서 63개 한방병원이 적발됐는데 광주에서 적발된 병원은 그 중 41%인 26곳에 달했다. 광주 불법 한방병원에게 내려진 환수 결정 금액 또한 276억원으로, 광주 전체 환수 결정 금액의 23.7%를 차지했다.

보험업계에서는 한방병원이 광주에 몰려 있기 때문에 불법기관도 많이 적발된다고 입을 모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보건의료빅데이터 개방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광주 한방병원 개수는 85개소로, 인구 수가 6배 넘게 차이나는 서울(87개)에 맞먹는 숫자다. 이는 전국 한방병원 539개소 중 15.7%에 해당하며, 부산 26개·대구 15개·대전 16개·울산 5개 등 다른 5대 광역시 한방병원 개수를 전부 합친 것보다 많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보험업계에서는 기형적으로 많은 광주 한방병원 상당수가 사무장병원이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보험업계에서는 광주 인근에 한의학·보건행정·보험관련 전공을 하는 학생이 많은 점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학생들이 졸업 후 취업할 수 있는 곳이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사무장 병원과 같은 범죄 유혹에 빠질 위험이 높다는 것이다. 또 한방병원은 인·허가를 받기 쉽고, 고가의 의료장비를 구입할 필요도 없어 쉽게 개설할 수 있다는 점도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장선식 건강보험공단 광주전남본부 의료기관지원부 팀장은 "전남지역에서 찾아오는 노인 인구가 많고, 광주 자체가 '소비도시'인 만큼 유동인구가 많아 환자를 유치하기 쉬워 광주로 수요가 몰리고 있다"며 "광주는 첨단지구 등 모텔촌 건물을 싸게 인수해 사무장병원을 여는 등 손쉽게 개원할 수 있는 점도 원인이 됐다"고 분석했다.

불법기관이 횡행할수록 결국 피해는 광주시민들의 몫으로 돌아온다는 지적도 나왔다. 병원 실소유주인 사무장의 뜻에 따라 병원을 운영하므로 극한의 수익을 끌어내기 위해 보험사기도 마다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허장윤 손해보험협회 서부지역본부 부장은 "사무장병원을 뿌리뽑으려면 지자체는 병원 설립 인·허가 과정을 더욱 꼼꼼하게 하고, 경찰 등 수사기관은 집중 수사를 펼쳐 경각심을 심어줘야 한다"며 "시민들 또한 사무장병원 등 사기가 의심되는 병원을 발견 시 관계당국에 적극적으로 신고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화제의 판결

80대 노인 법정 6번 출석, 무죄받은 사연은

이웃집 화재 유발 혐의…사고보고서 정황과 다른 증언들 나와

화재 발생 9시간 전 집 뒷편 아궁이에서 보리차를 끓인 80대 할머니가 하마터면 실화 혐의로 범죄자가 될 뻔 했다.

담양에 사는 A(85)씨는 지난해 5월 17일 오전 7시 30분께 집 뒷편 화로 아궁이에서 보리차를 끓이고 불을 완전히 끄지 않은 채 공공근로를 나갔다가 귀가해 방안에서 TV를 보고 있었다. 그런데 같은 날 오후 5시 15분께 A씨 이웃집인 B씨의 창고 일부와 태양광 패널에서 불이 나 39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경찰과 검찰은 A씨를 실화 혐의로 송치하고 재판에 넘겼다. 화재 직후 현장에 출동해 화재 원인을 조사했던 경찰관과 소방관이 내놓은 사고조사 보고서가 A씨 범행의 증거였다.

보고서에는 B씨의 집 내부에는 발화원이 전혀 없었다는 전제 아래 'A씨 집에 있던 화로 아궁이에서 비화한 불씨가 바람을 타고 주변의 가연물에 옮겨 붙어 화재를 일으킨 것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A씨에 대한 재판이 진행됐고 80대인 A씨는 여섯번이나 열린 재판기일에 모두 출석해 억울함을 항변했다.

광주지법 형사38단독(부장판사 이광헌)은 실화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과정에서 사고조사 보고서의 정황과 다른 증언들이 나왔기 때문이다.

보고서를 작성했던 경찰관과 소방관은 법정에서 'A씨 집 화로 아궁이의 불씨가 9시간 이상 꺼지지 않고 있다가 오후 5시께에 비로소 근처에 있던 다른 물건에 옮겨붙어 화재를 일으킬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증언을 했다. 법정에 서자 자신들의 조사 보고서와 다른 증언을 한 것이다.

또 B씨의 아들도 증인으로 출석해 "화재발생 당일 오전 11시께부터 오후 4시30분께까지 집 마당에서 후배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화덕에 불을 피웠고 그 사이 담배를 피우기도 했다"고 증언했다.

재판부는 "화재 발생 무렵 B씨의 집 또는 그 마당에서 발화원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불길이 B씨 창고에서 A씨의 집 쪽으로 넘어갈 것 같은 상황에도 A씨는 불이 난 것을 알지 못한 채 방에 앉아 TV만 보고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A씨 과실로 화재가 발생했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정병호 기자 jusbh@

AI헬스케어 체험 했어요

광주시 동구청이 21일 광주시 동구 서석동 창업지원센터 헬스케어 체험존에서 동구 AI헬스케어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열었다. 주민건강서비스를 위한 측정 및 관리 장비 시연행사에 참가한 시민들이 교통사고 이후 PTSD(외상후 스트레스장애) 극복 VR 치료와 기초체력 측정 체험을 하고 있다.

/나명주기자mjna@

저류지 설치 공사현장 상수도관 파열 나주 9500여 세대 수돗물 공급 중단

시, 급수차·식수 등 지원

나주지역 저류지 설치 공사현장에서 광역 상수도관이 파열돼 인근에 있는 9500여 세대에 수돗물 공급이 중단됐다.

나주시는 21일 오전 10시 30분께 나주시 삼영동 '삼영1지구 우수저류지 설치 공사' 현장에 매설돼 있던 상수도관의 연결 접합부가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 사고로 나주시 왕곡면, 영산동, 영강동, 이창동, 세지면 등의 9517세대와 10여 곳의 학교, 상가 등이 수돗물 단수 피해를 입었다.

나주시는 '한국수자원공사 나주수도지사'와 함께 긴급복구 작업에 나섰다. 이날 오후 5시께 복구작업은 완료됐지만, 상수도관에 물이 채워지지 않아 단수된 모든 세대에 수돗물이 공급 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나주시는 지난 20일부터 내린 비와 공사 때문에 약해진 지반이 무너지면서 최근 이설한 직경 300㎜ 상수도관의 연결 접합부가 빠진 것으로 추정하고 구체적인 원인을 파악 중이다.

한편 나주시는 단수 피해를 입은 지역에 급수차(15t) 20대와 식수 1만 6000여병(1.8ℓ)을 지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아내 폭행했던 남편 또…이번엔 흉기 휘둘러 구속

과거에도 아내를 폭행했던 남편이 흉기까지 휘두르다 현행범으로 구속됐다.

광주북부경찰은 아내를 흉기로 찌른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7일 오전 10시 30분께 광주시 북구 신안동 집에서 아내와 말다툼 하다 도망간 아내를 쫓아가 흉기로 수회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흉기에 찔린 아내 B씨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B씨와 불화가 잦았고 최근 폭력을 휘둘러 두 차례 입건 된 전력이 있었다.

이에 경찰은 B씨에게 신변보호용 스마트워치를 지급했다. 범행당시 도주해 문이 열린 이웃집으로 들어간 B씨가 본인 소유의 휴대전화로 경찰에 신고를 했다. 경찰 관계자는 "스마트워치 발부당시 등록된 B씨의 휴대전화번호로 신고가 되자 위기상황으로 인지하고 즉각 출동해 7분만에 A씨를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말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선거법 위반 혐의 이상철 곡성군수 검찰, 벌금 700만원 구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상철 곡성군수에게 벌금 700만원이 구형됐다.

검찰은 21일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상규) 심리로 열린 이 군수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군수는 지난해 6월 8일 전남 곡성군의 한 한우 전문 식당에서 선거운동원 등 69명에게 55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선거사무원 관계자 등 21명과 함께 기소됐다.

검찰은 "당시 회계 잔액, 거짓 모금 연출 정황 등을 고려하면 유죄가 명백하다"고 주장했고 이에 대해 이 군수측은 "식사제공 행위가 선거 종료 이후 발생했으며 보상 목적 금품 제공이 아니라 내부적인 선거운동원 해단식 목적의 인간적 차원의 식사제공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이 군수 등 22명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7일 열린다.

/정병호 기자 jusbh@

건물·주택 리모델링, 신축, 지붕공사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MODERN 모던건설 시공문의 전상하 T. 062)531-3530, H. 010-9229-3530
사무실 광주시 북구 자미로45(신안동)
공 장 광주시 서구 서창2길3(서창동)

• 금당부동산 •

도시형 생활주택 등 (나주시)
- 대지 954㎡ (상업지 288.6평)
- 건물 2,254㎡ (681.84평) 지상 5층, 2022.4 준공
- 도시형 생활주택 42세대. 오피스텔 7실 근린시설 73.4㎡
- 매도 45억 (감정 50억, 대출 25억)
- 임대 보증금 2억8천 월세 2,400만원 포함
- 이전은 법인이전가능하고 사업부지와 교환도 가능

장흥군 안양면 수문해수욕장 2,650㎡ (801평)
- 경관 아주 좋음. 별장형 빌라, 숙박시설 등 적합
- 본땅 2,346㎡(710평). 도로 포함 801평. 매도 7억5천만원

무안군 운남면 내리 3,940㎡ (1,191평)
- 공시지가 45백 527천원 전원생활적합

무안군 청계면 강정리 바닷가마을 대지 850.6㎡ (257평)
- 집 83㎡ 다세대분양 적합. 은행 5천 매도 2억7천

무안군 현경면 평산리 바닷가 접 땅 4,650㎡ (1,406평)
- 공시가 7,527만원. 투자에 좋음. 매매가 1억6천

진도군 임회면 굴포리 670㎡ (202평)
- 전원생활적합 950만원 (평당 47,029원)

고흥군 도화면 사덕리 전 포함한 산 47,537㎡ (14,380평)
- 투자 등 적합 1억5500 (평당 10,778원)

전화 062-222-4994 / 010-2632-5659
FAX 062-222-4993

주목성 뛰어나 단시간내 최대의 광고효과
1일 150회, 월 4500회 송출
국내 최고 고화질 LED풀칼라 최고화질

1. 광주의 중심, 아시아문화전당지역 최대의 유동인구 밀집지역
-옛전남도청 앞, 금융가, 관공서, 아파트, 상가 밀집, 주목률 최고!
2. 문화전당지구, 문화광장 이벤트 지역 인구 집중
-광주동구 문화전당 중앙부에 위치하며 통행량 및 이동의 중심에 위치
-아시아문화전당 앞 충장로 입구 공연 이벤트 등으로 인구 유입 최대
3. 높은 광고효과
-문화전당, 구도심, 아시아문화전당, 금융가, 광주광역시 최고 중심지로 이동차량 및 이동인구가 가장 많은 곳
-평일 출·퇴근 및 주말에 인구 유입되고 문화를 접목한 이벤트 풍성하여 광고 노출의 극대화
4. 국내외 및 관광객 유입으로 인한 광고효과
-아시아문화전당 중심지로 국내·외 외국인 관광객들이 이동하는 최적의 장소
5. LED전광판의 특징
-반복표출을 통한 메시지 전달의 극대화, 광고주의 필요에 따라 표출 내용의 신속한 변경

광고문의. 062)220-0531